

사달과 사단

식구와 가족

더빙말과 트빙진말

강희숙

기쁘다와 즐겁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크마하 전염

깃들다와 깃들이다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살지다와 살찌다

늘이다와 늘린다

마음먼다와 결심하다

가례의학과
비밀전서

강희숙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IỆP HÀ NỘI
TRUNG TÂM THÔNG TIN THƯ VIỆN
07 07
04655

HANOI UNIVERSITY OF INDUSTRY
KOREAN DEPARTMENT

가례의학과

책머리에 부쳐

2012년 7월 2일부터 2016년 9월 25일까지였으니 햇수로 4년여의 기간 동안 필자는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어김없이 컴퓨터 앞에 자리를 하였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의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 위해서였다.

작업을 마친 뒤 얼마 안 있으면 여기저기서 ‘읽음 확인’이라는 메일이 날아들었다. 강제된 글 읽기를 피하지 않고, 컴퓨터 저편에서 따뜻한 응답을 해 주시는 분들에게서 날아온 수백 통의 메일들. 때로는 컴퓨터 앞에서 졸다가 자정이 넘은 시각에 편지를 띄우는 일도 없지 않았지만, 그 시각에도 깨어 있는 이들이 있어 응답을 해 주었으니 결코 외로운 작업이 아니었다.

‘우리말 편지’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작업이 4년여의 시간을 지나오면서 첫 2년간의 작업의 결과를 『우리말 편지』라는 책으로 간행을 하고 난 뒤, 필자는 다시 2년 정도의 시간을 같은 일에 매달렸다. ‘우리말 편지 II’, 이번에는 ‘다른 말과 틀린 말’이라는 부제를 달고서였다.

이상이 『다른 말과 틀린 말』이라는 제목의 책의 내력이라면 내력인 셈이다. ‘다른 말’에서는 둘 이상의 우리말 단어들에 그 의미와 기능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명하였고, ‘틀린 말’에서는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할 단어나 표현을 살피는 데 관심을 두었다.

애초에는 우리말에 대한 대학 구성원들의 이해를 깊게 하려는 뜻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사실은 필자 자신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해야 솔직한 말일 것이다. 때로는 사전의 정의를 낱낱이 뒤지고, 적절한 예문을 찾는 동안 우리말에 대한 필자의 식견을 넓히는 데 더할 나위 없이 큰 도움이 돼 주었던 것이다.

어쨌든 알팍한 것이나마 우리말에 대한 글을 매개로 한 소통의 시간이 주는 즐거움이 적지 않아서 이 일을 언제까지고 계속할 수도 있으리라는 생각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2년을 단위로 하는 매듭을 다시 한번 지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욕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던 터, 도서출판 역락 이대현 사장님의 흔쾌한 응답은 필자로 하여금 책의 간행을 서두를 수 있도록 해 주었다. 권분옥 편집장님의 따뜻한 조언과 정성어린 편집이 아니었더라면 이 책이 세상으로 나오는 일은 힘들고 더디었을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맨 처음이 그랬듯이 마지막 순간에도 잊을 수 없었던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대학 구성원들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다음의 편지가 그 일단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어제오늘, '마지막 편지'라는 저의 말에 많은 구성원들께서 아쉬움과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아낌없이 보내주셨습니다. 당연히 한 분 한 분께 답을 드리는 것이 도리이지만 용기를 내어 고마움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담아 보냅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문득 제게 '한 시간의 산책'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 다시 생각해 보니 때는 바야흐로 가을이고, 그리하여 산책하기에 딱 좋은 계절이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열 시간의 고민보다
한 시간의 산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책장을 덮듯 하던 일을 덮고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시 잊고 가볍게 산책을
다니오는 동안
우리가 덮어 두었던 것들은
제 스스로 발효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내려놓는 것도 알아야
언덕 너머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한 편의 시가 말하여 주고 있듯이, 제게 허락된 '한 시간의 산책'은, 그 동안 아등바등 붙들고 있던 것들을 잠시 '내려놓는 것은' 언덕 너머의 삶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것도 약속할 수가 없지만, 혹여 언덕 너머에서 돌아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들의 모국어인 한국어를 통한 정겨운 대화의 장을 다시 한번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성원 여러분께 늘 좋은 일들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오며 감사의 말씀을 이만 줄입니다.

결국 필자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간의 매듭이라기보다는 한 시간의 산책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운 듯싶다. 그러한 산책을 통해 오래 묵어 깊은 맛이 나는 김장김치처럼 스스로를 발효시킬 것. 이것이 자신과 구성원들에 대한 단단한 약속이었음을 잊지 않으려 한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때,
무등산 아래서 필자 씀.

차례

- ‘다르다’와 ‘틀리다’ • 11
‘맞히다’와 ‘맞추다’ • 13
‘기쁘다’와 ‘즐겁다’ • 16
‘깃들다’와 ‘깃들이다’ • 19
‘늘이다’와 ‘늘리다’ • 22
‘조리다’와 ‘졸이다’ • 25
‘돌우다’와 ‘돌구다’ • 28
‘비치다’와 ‘비추다’ • 31
‘붙이다’와 ‘부치다’ • 35
‘고맙다’와 ‘감사하다’ • 39
‘쫓다’와 ‘쫓다’ • 42
‘떨다’와 ‘탈다’ • 45
‘등산(登山)’, ‘등반(登攀)’, ‘등정(登頂)’ • 48
‘빌리다’와 ‘빌다’ • 51
‘사달’과 ‘사단’ • 54
‘싸이다’와 ‘쌓이다’ • 57
‘만죽’과 ‘만지’ • 60
‘소망/바람’과 ‘염원’ • 63
‘덮이다’와 ‘덮히다’ • 66
‘마음먹다’와 ‘결심하다’ • 69
‘연(ian)’과 ‘년(nian)’ • 72
‘어떡하다’와 ‘어떻다’ • 75
‘도긴개긴’과 ‘*도전개전’ • 78
‘쇠어’와 ‘쇄’ • 81
‘홀화살팔호’와 ‘겹화살팔호’ • 84
‘3.1절’과 ‘3·1절’ • 87
‘냄새’와 ‘내음’ • 90
‘한들’과 ‘한두’ • 93
‘너무’와 ‘정말’ • 96
‘성품’과 ‘성갈’ • 100
‘복불복’과 ‘*복골복’ • 103
‘꽃봉오리’와 ‘산봉우리’ • 106
‘맹세’와 ‘맹서’ • 109
‘여의다’와 ‘여우다’ • 112
‘내추럴’과 ‘*내츄럴’ • 115

- ‘덕분’과 ‘때문’과 ‘탓’ • 118
- ‘협찬’과 ‘후원’ • 121
- ‘리플릿’과 ‘팸플릿’ • 124
- ‘웬지’와 ‘*웬지’ • 128
- ‘더위’와 ‘무더위’ • 131
- ‘치찰’과 ‘*쳐어찰’ • 134
- ‘카페오레’와 ‘밀크커피’ • 137
- ‘더치페이’와 ‘각자내기’ • 140
- ‘모호하다’와 ‘애매하다’ • 143
- ‘수육’과 ‘재육’ • 146
- ‘육개장’과 ‘*육계장’ • 149
- ‘닭볶음탕’과 ‘*닭도리탕’ • 152
- ‘돈가스’와 ‘*돈까스’ • 155
- ‘일제강점기’와 ‘*일제시대’ • 157
- ‘패다’와 ‘피다’ • 160
- ‘당기다’와 ‘땅기다’ • 163
- ‘살지다’와 ‘살찌다’ • 166
- ‘가득하다’와 ‘그득하다’ • 169
- ‘푹콩’과 ‘해콩’ • 172
- ‘햅쌀’과 ‘해참쌀’ • 175
- ‘드리나다’와 ‘*들어나다’ • 178
- ‘사라지다’와 ‘살아지다’ • 181
- ‘함께하다’와 ‘함께 하다’ • 183
- ‘띠다’와 ‘띄다’ • 186
- ‘뜨이다/띄우다’와 ‘띄다’ • 189
- ‘해거리’와 ‘비엔날레’ • 192
- ‘사망’과 ‘서거’ • 195
- ‘참석’과 ‘참가/참여’ • 198
- ‘당부’와 ‘부탁’ • 201
- ‘야단’과 ‘꾸중/꾸지람’ • 204
- ‘있다가’와 ‘이따가’ • 207
- ‘아쉽다’와 ‘서운하다/섭섭하다’ • 210
- ‘예쁘다’와 ‘이쁘다’ • 213
- ‘푸르다’와 ‘푸르르다’ • 216
- ‘마요’와 ‘말아요’ • 219

- '하야네'와 '하얏네' • 222
 '강추위'와 '강(強)추위' • 225
 '약관(弱冠)'과 '묘령(妙齡)' • 228
 '재자(才子)'와 '재원(才媛)' • 231
 '의론'과 '의논' • 234
 '가르치다'와 '가리키다' • 237
 '글귀'와 '시구(詩句)' • 240
 '말귀'와 '글귀' • 243
 '한가운데'와 '한 동네' • 246
 '동백'과 '생강나무' • 249
 '산수유'와 '생강나무' • 252
 '식구'와 '가족' • 255
 '조팝나무'와 '이팝나무' • 258
 '서러움'과 '설움' • 261
 '기연가미연가하다'와 '긴가민가하다' • 264
 '지새우다'와 '지새다' • 267
 '경신'과 '깡신' • 270
 '나이 듦'과 '*나이듦' • 273
 '아삼륙'과 '*아삼육' • 276
 '난이도'와 '난도' • 279
 '교정'과 '캠퍼스' • 282
 '안개비'와 '눈개' • 285
 '눈살'과 '*눈쌀' • 288
 '뜬금'과 '*똥금' • 291
 '헬쓱하다/해쓱하다'와 '*헬쓱하다' • 294
 '팬스레'와 '*팬시리' • 296
 '늦여름'과 '만하(晩夏)/계하(季夏)' • 299
 '재스민'과 '*자스민/*자스민' • 302
 '예초기'와 '예취기' • 305
 '쇠털'과 '새털' • 308
 '반딧불'과 '반딧불이' • 311
 '뭇국'과 '시래깃국' • 313
 '누적'과 '축적' • 316
 '사람'과 '인간' • 319

'다르다'와 '틀리다'



서로 달라요!
다르다 ↔ 같다
틀리다 ↔ 맞다

주말 오후, 담양 고서에 준비하게 자리한 포도농장에 들렀습니다. 단맛과 향내가 뛰어난 캠벨을 비롯하여 알이 유난히 큰 거봉, 에메랄드 빛 청포도 등등 포도는 그 이름만큼이나 크기며 색깔, 맛이 천차만별이었지요

그런데 거봉과 비슷하면서도 빛깔이 약간 다른 포도송이를 가리키며,

“이것도 거봉하고 같아요?” 하고 물으니 주인이 “두 개가 서로 맛이 **틀려요**”라고 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조금 불편해졌습니다. “서로 달라요”라고 해야 하는 상황에서 ‘틀려요’를 사용하는 국어 화자(話者)와 또 다시 마주친 탓이었습니다.

‘다르다’와 ‘틀리다’, 이 두 단어에 관한 한, 맞게 쓰는 사람들보다 틀리게 쓰는 사람들이 더 자주 눈에 띄는 듯하니 ‘두 단어의 의미를 서로 바꿔줘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다르다’와 ‘틀리다’는 품사며 의미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 단어 | 품사 | 의미 및 용례 |
|-----|-----|--|
| 다르다 | 형용사 | 1. 비교가 되는 두 대상이 서로 같지 아니하다. 예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2.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다. 예 역시 우리 대학은 달라 . |
| 틀리다 | 동사 | 1. 셈이나 사실 따위가 그르게 되거나 어긋나다. 예 문제까지 알려 줬는데도 답을 틀리다 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2. 바라거나 하려는 일이 순조롭게 되지 못하다. 예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3. 마음이나 행동 따위가 올바르지 못하고 비뚤어지다. 예 그는 사람이 틀렸어 . |

요컨대, '다르다'와 '틀리다'가 보이는 이러한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르다'는 주로 '같다'와, '틀리다'는 '맞다'와 반의 관계(反意關係)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맞히다'와 '맞추다'



대학 새내기 시절, 과 동기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했던 것이 바로 지리산 등반이었습니다. 첫 번째 등반이 노고단에서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까지 25.5km를 걷는 종주 등반이었는데, 변변한 신발이나 옷도 없이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겁이라고는 없었던 스무 살 나이 때문이었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 험하고 긴 여정 속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붙던 것이 한 가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수수께끼였습니다.

별 가운데 가장 슬픈 별은?
진짜로 문제투성이인 것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제비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러한 수수께끼는 난센스 퀴즈 같은 것이었는데, 누군가가 '알아맞혀 보라'는 뜻에서 내놓은 문제에 대한 답을 찾느라 생각에 골몰한 표정을 짓거나, '이별', '시험지', '수제비' 등등의 답이 나올 때마다 소리 내어 웃는 동안 통통 부은 종아리와 발가락의 통증도 말끔히 잊을 수

저자 강희숙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요 저서

- 《국어 정서법의 이해》(2010, 단독)
- 《사회언어학사전》(2012, 공저)
- 《우리말 편지》(2014, 단독)
- 《사회언어학 : 언어와 사회, 그리고 문화》(2014, 공저)
- 《언어와 금기》(2015, 공저)
- 《한국인 이름의 사회언어학》(2016, 공저)
- 《현대음운론 입문》(1997, 공역)
- 《언어 변이와 변화》(1998, 공역)

다른 말과 틀린 말

초판 인쇄 2016년 12월 23일

초판 발행 2016년 12월 30일

저 자 강희숙

펴낸이 이대현

편 집 권분옥

디자인 홍성권

펴낸곳 도서출판 역락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46길 6-6 문창빌딩 2층

전화 02-3409-2058(영업부), 2060(편집부)

팩시밀리 02-3409-2059

이메일 youkrack@hanmail.net

역락블로그 <http://blog.naver.com/youkrack3888>

등록 1999년 4월 19일 제303-2002-000014호

ISBN 979-11-5686-719-7 03710

- 책값은 표지에 있습니다.
- 파본은 구입처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
기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6032422)

'다르다'와 '틀리다'

두 단어에 관한 한, 맞게 쓰는 사람들보다 틀리게 쓰는 사람들이 더 자주 눈에 띄는 듯하니 '두 단어의 의미를 서로 바꿔 줘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듯이 '다르다'와 '틀리다'는 품사며 의미가 서로 다른 별개의 단어입니다.

| 다르다

예 - 좀 다르게 살아도 괜찮아.

예 - 역시 우리 대학은 달라.

| 틀리다

예 - 문제까지 알려 줬는데도 답을 틀리다니 이해할 수가 없구나.

예 - 오늘 이 일을 마치기는 틀린 것 같다.

예 - 그는 사람이 틀렸어.

요컨대, '다르다'와 '틀리다'가 보이는 이러한 의미 차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다르다'는 주로 '같다'와, '틀리다'는 '맞다'와 반의 관계(反意關係)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두 단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TRƯỜNG ĐẠI HỌC CÔNG NGHỆ
TRUNG TÂM THÔNG TIN T



Mã sách: 070704655

ISBN 979-11-5686-719-7



9 791156 867197 03710

값 20,000원